



고려해운

22년 연속 흑자 대기록 달성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3월30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및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를 결산하는 제2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06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의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되었다.

고려해운은 지난해 고유가 지속, 원화환율 강세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매진한 결과 매출액 4,520억원, 영업이익 88억원, 경상이익 86억원, 당기순이익은 91억원을 기록하였다.

지난 1985년 이후 22년 연속 흑자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고려해운은, 업계에서 내실 경영의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성해운

부산신항만 기항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이 부산 신항만 기항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성해운의 962TEU급 스타아팩스호가 지난 2

월과 3월에 이어 MSC 선사의 일본과 중국행 환적 화물 운송을 위해 4월18일 부산신항에 기항했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9시 부산신항만 3번 선석에 기항, UASC 선사의 아시르(ASIR)호에서 양하한 일본행 환적 화물 40피트 컨테이너 105개, 총 210TEU의 컨테이너를 선적했다.

부산신항 관계자는 “지난 2월 최초 피더서비스 선박의 기항 이후 연이어 남성해운의 피더서비스 선박을 유치하게 돼 진정한 환적화물 중심 허브항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더 서비스 선박의 신항 직기항이 부산 도심내 교통 체증을 줄여,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해운

창립10주년 기념식 거행

선박대리점업과 선박대여업을 시작한 후 국적선사로 변신을 성공한 보고라인(대표 최재주)이 3월 20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외 선사, 보험업계, 금융계 대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10주년 기념식에서 최재주 대표는 “장보고와 해양강국을 기리며 창립한 보고라인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0주년에 이르게 되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함은 물론 “지난 10주년이 물을 주는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시기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최재주 대표는 신한은행 한상철 광화문 지점장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장우 대표이사의 축사와 Seamaster Insurance & Claim Services 이석행 대표이사의 축하 건배제의도 있었다.

한편 최재주 대표이사는 해양대학교 항해과(38기)를 졸업한 정통 해운인으로 장우, 씨프러스 등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지난 1997년 3월 (주)보고라인을 설립했다.

보고라인은 2003년 4,800톤급 Polygo호를 통해 극동,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고객의 프로젝트 화물과 일반화물, 목재, 철재 등을 운송을 시작했으며, 현재 6,925DWT Glengo호와 1만 3,537DWT의 Susango호를 사선으로 보유하는 등 선대를 확충시켜 왔다. 보고라인은 정시운송을 위해 선박확대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그룹

회사별로 사외이사 1-2명 추가선임



STX그룹 주요 계열회사는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매출 10조원, 수출 70억 달러' 달성의 경영목표에 걸맞는 선진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회사별로 1-2명씩 추가 선임했다.

지주회사적인 (주)STX는 상근이사로 배대관

조선영업본부 부사장과 정남수 전략기획본부 상무를, 사외이사에는 운영섭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백운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 변호사, 김화진 서울대 법과 대학 교수를 신규로 선임했다.

이로써 (주)STX는 상근이사 및 사외이사를 지난해 각각 3명에서 올해 5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사내와 사외이사진을 동일 수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STX Pan Ocean은 상근이사로 유천일 전략기획본부 전무를, 사외이사에는 왕성치(Wong Seng Chee) 前 싱가포르 항만청 전무를 신규 선임하여 사내와 사외이사를 각각 5명으로 구성했다.

STX 조선은 윤연 前해군사관학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남익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해 지난해 보다 1명 늘어난 5명의 사외이사진을 구성했다.

이밖에 STX엔진도 이진명 前 쌍용화재 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진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장금상선

한-일정기항로 서비스 대폭 강화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4월17일부터 광양-하카다항로를 확대해 일본에서 三島川之江(미시마 카와노에)·시모노세키를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부산 기항을 개시하는 등 한-일항로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모노세키는 부산·마산 항로에서 기항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광양항로에서도 기항을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SS Ulsan(116TEU급)를 투입하는 정요일 위클리 서비스로, 새로운 기항지는 부산



(수)/광양(목)/三島川之江(금)/부산(토)/광양(일)/시모노세키(월)/하카타(월)/히비키(화)/부산(화) 순이다.

장금상선은 또 4월 중순이후 일본 케이힌지역(도쿄·요코하마)에서 평택을 잇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케이힌발 화물을 부산에서 평택전용의 서비스에 접속해 케이힌과 평택항간의 수송시간을 7일로 묶는다.

이는 서울착 화물을 부산에서 평택 경유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륙수송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화물을 중심으로 집하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오사카노선 주1항차 운항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은 '팬스타드림' 호에 이어 4월5일부터 '팬스타씨니' 호가 부산-오사카 노선에 투입하여 주7항차 운항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매일 오후 4시에 부산과 오사카에서 출항하는 팬스타크루즈페리를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투입된 '팬스타씨니' 호는 선체길이 186m, 폭 25.5m, 총톤수 2만6,847톤, 화물적재량 270TEU, 승용차 100대, 여객정원 683명의 초대형 선박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초대형 선박의 위용만큼이나 내부 시설들도 새롭게 정비하여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였고, 선내 인테리어도 깔끔히 단장했다.

선내에는 기본적으로 대형레스토랑과 이벤트공연장, 그리고 사우나 시설이 있으며 특히 여성고객을 위한 파우더룸을 신설하였고, 비즈니스 고객



을 위한 비즈니스 라운지도 준비중에 있다. 지금은 출항후 일정 시간동안 인터넷이 가능하며 가로부터는 선내에서 항상 인터넷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상 이동중에도 필요할때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한 교신 및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다.

한편, 팬스타라인닷컴은 '팬스타씨니' 호의 추가 투입에 따른 데일리 서비스를 기념하기 위해 4월18일 '부산-오사카 운항 5주년 및 팬스타씨니호 취항기념식' 과 축하행사를 가졌다. 팬스타씨니호 선상 및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곽인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재부산일본영사관 나가가와 부영사 등 관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진해운

글로벌 경영전략 회의 개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4월30, 31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박정원 사장 주재로 '글로벌 경영 전략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외 전 지점장 및 그룹장, 본사 전 임원 및 팀장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단순한 영업전략 회의에서 탈피하여, 회사의 '중장기 경



영전략'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물류 연계 사업 분야에서 향후 '신 성장 동력' 발판을 모색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이다.

참석자들은 모두 12개 그룹으로 나뉘어 사업 다각화와 선대 확충, 책임경영, 터미널 및 벌크 사업 발전 등 각 그룹별 주제에 대한 전사적인 브레인 스토밍(Corporate-wide Brain Storming)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영혁신(PI, Process Innovation)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된다.

박정원 사장은 인사말에서 “경영 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중장기 경영 전략의 빈틈 없는 수립을 통해 한진해운이 세계 초일류 종합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컨테이너 및 벌크 사업의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물류 관련 연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미국 오웬스 코닝사(Owens Corning)가 선정한 '올해의 선사상(Ocean Carrier of the Year Awards)'을 5년 연속 수상했다.

우리 섬유 및 건축 자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인 오웬스 코닝사는 매년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 선사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장비 △선복 제공의 안정성 △운송의 정시성 △서비스 신뢰도 △협력관계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고객서비스 △안정적 장비/선복 공급 △합리적인 운임 책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올해의 선사'로 선정됐다.

오웬스 코닝사 물류부분 총책임자 제리 얼름(Jerry Ulm)은 “한진해운이 안정적인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웬스 코닝사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진해운은 “오랜 기간 오웬스 코닝사로부터 최고의 선사로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오웬스 코닝사는 물론 미국 라이더(Ryder System Inc.)사와 레이오니(Rayonier Inc.)사가 선정한 '올해의 선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상선

아시아-유럽항로 선대증강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www.hmm21.com)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유럽항로의 수송능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현대상선은 4월9일 20피트 컨테이너 6,800여 개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6,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현대자카르타' 호를 인도받아 아



시아-유럽항로에 투입시켰다고 이 날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지난해 4월 '현대상하이' 호 취항을 시작으로 이번 '현대자카르타' 호까지 총 8척의 6,800TEU급 신조선을 아시아-유럽항로에 투입했다. 기존에 5,5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이 운항하던 이 항로의 수송능력은 이번 개편으로 24%정도 증대됐다.

현대상선은 이번 유럽항로 재편으로 기존 아시아-유럽구간을 운항하던 5,500TEU급 컨테이너선을 아시아-북미간 항로에 투입하여 아시아-북미 항로의 수송능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한편, 컨테이너 시황이 전년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아시아-유럽간 항로는 주요 유럽국가의 구매력 상승, 동유럽 국가의 급격한 경제성장 등으로 물동량이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아시아-유럽항로에 6,800TEU급 초대형선을 투입해 수송능력을 증대시켜온 현대상선의 선박투자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상선은 2010년까지 8,6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과 6,4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4,6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추가로 투입시키는 등 주요 구간의 수송능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대상선 측은 "아시아-유럽구간을 중심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등 최근 컨테이너 해운시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상선은 정확한 시황 예측에 의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영업망 확대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카르타' 호 선박소개]

△ '현대자카르타' 호는 길이 294.12미터, 폭

40미터, 깊이 20.17미터의 크기에 총톤수(G/T) 7만5천톤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이다. 선박의 길이는 축구장 3개와 비슷하며, 세워놓으면 63빌딩(246미터)보다 48미터가 크다.

△ '현대자카르타' 호가 한번에 선적할 수 있는 6,800여개의 20피트 컨테이너(길이 약 6미터)를 한줄로 늘어놓으면 40.8km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오산IC 근처에 이르는 엄청난 길이이다.

△운항구간 AEX (Asia-Europe Express) : 부산→카오슝(대만)→홍콩→싱가포르→로테르담(네델란드)→함부르크(독일)→템스포트(영국)→르하브르(프랑스)→싱가포르→홍콩→카오슝→광양→부산 (6,800TEU급 컨테이너선 X 8척 주1회 기항)

흥아해운

한-일항로 서비스 확대

흥아해운(대표 김태균)은 4월16일부터 부산-일본 동북지역간 피더서비스인 저팬도호쿠서비스(JTH)에서 오후나토(大船渡)항을 신규 기항한다고 밝혔다.

부산항과 일본 간토(關東)지방 센다이(仙臺)항 및 오나하마(小名浜)항을 연결해 온 이 서비스는 이번 오후나토 취항에 따라 일본지역 기항지는 3곳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노선은 부산(월)-오나하마(목)-센다이(금)-오후나토(토)-부산(월)의 순으로 주 1회 정요일 서비스가 이뤄지며, 개편 노선의 첫 항차는 14GT 컨테이너기준 적재능력 530TEU급의 '흥아자카르타' (Heung-A Jakarta)호가 4월16일 부산을 출항함으로써 시작됐다. 흥아해운은 현재

한일항로에서 JTH를 비롯한 11개의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보직교수 등 인사발령



목포해양대학교(신철호 총장)는 2007년 4월1일자로 교육공무원(보직교수 및 승진인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보직교수 인사발령] △교무처장 崔民善 교수(기관시스템공학부) △학생처장 崔朝天 교수(해양전자통신공학부) △산학협력처장 琴宗洙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기획실장 金俊孝 교수(기관시스템공학부) △도서관장 朴重淳 교수(기관시스템공학부) △기계전자기술연구소장 金甲基 교수(해양전자통신공학부) △기숙사사감장 崔益暢 교수(해양시스템공학부) △산학협력단장 任政彬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Sea Grant 사업단장 安榮燮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승진(정년보장)] △金光壽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申相賢 교수(기관시스템공학부) △安秉元 교수(기관시스템공학부)

[조교수승진] △林南均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李永鐵 교수(해양전자·통신공학부) △李美羅 교수(해양전자·통신공학부) △李京善 교수(해양시스템공학부)

부산항만공사

일본 물류기업 타깃 마케팅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이갑숙)가 신항 배후 물류부지에 입주하는 일본의 물류기업과 선사 등을 상대로 타깃 마케팅에 나섰다.

BPA는 4월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한-일 물류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BPA 이갑숙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코마츠, 일본육운산업 등 200여개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부산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과 투자여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날 만남의 장에서는 신항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하는 미쓰이물산 관계자가 '부산항을 이용한 물류비 절감사례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대한통운(주) 등 신항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일본의 60여개사가 참여하는 양국 물류기업간 상담회도 가졌다.

한편 BPA는 이날 오후와 4월13일 NYK, MOL, K-Line 등 일본의 주요선사를 잇따라 방문, 환적화물 인센티브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산항의 노력 등을 설명한 뒤 부산항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도록 당부했다.

BPA 강부원 마케팅팀장은 "국내외 물류기업간 이 같은 만남을 통해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개발예정단지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관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제1회 해운항만 아카데미 개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마련한 제1회 해운 항만 아카데미가 4월7일 토요일 오전 9시 인천항운노조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항만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개설한 제1회 해운 항만 아카데미는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해운항만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와 실무 지식을 강의하게 된다.

당초 제1회 해운 항만 아카데미는 인천항만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가 의사를 밝힌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장소를 보다 넓은 노조회관 대강당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이번 해운항만 아카데미를 통해 항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교육 참가생들을 위한 김밥과 음료, 다과 등을 제공해 이른 아침 강의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선급

임시총회 개최, 임원진 선임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4월3일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무이사, 고문 및 감사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했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경영지원본부장에 김종철 상무이사, 검사지원본부장에 임삼택 상무이사, 기술지원본부장에 전영기 상무이사, 사업본부장에 김광수 상무이사가 각각 선임됐고, 2008년 IACS 의장직 수행에 대비하여 국제업무 총괄할 김태우 현 자문위원이 상근 고문으로 추대됐다.

김종철 경영지원본부장은 목포지부장을, 임삼택 검사지원본부장은 장생포지부장을, 전영기 기술지원본부장은 기술연구소장을, 김광수 사업본부장은 울산지부장을 각각 역임했다.

또한, 이날 비상근 감사에는 김태균 동아해운 사장과 박영규 신성해운 사장이 각각 선임됐으며, 중동지역 진출과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김영종 KONES 경영관리본부장이 비상근 고문으로 추대됐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컨테이너 자가 하역차량(ALV) 제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에서 운영중인 광양항 U-Port 시험연구센터가 세계 최초로 자가 상·하차가 기능이 탑재된 컨테이너 하역차량의 시제품을 제작·완료하여 시운전에 착수하였다.

광양항 U-Port 시험연구센터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서호전기(주)에서 개발한 자가 하역차량(Automated Lifting Vehicle)은 컨테이

너크레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받는 기능(Passive Loading)과 이송차량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집어갈 수 있는 기능(Passive Unloading)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컨테이너를 집을 수 있는 기능(Self Loading), 실려있는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능(Self Unloading)을 가지고 있어 기존 컨테이너 이송차량인 야드트랙터와 스트레들캐리어의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컨테이너 이송차량이다.

이는 컨테이너 하역장비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시대에 국내 항만 기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LV는 차세대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적용을 위한 고정밀 혼합 네비게이션 시스템(Navigation System)을 내장하고 정밀제어를 위하여 전기 직접 4륜 구동방식 및 조향장치와 충돌방지를 위한 레이저 스캐너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무인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해기사협회

제27대 신임회장에 추형호씨 선출

한국해기사협회는 4월12일 오전 11시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비롯, 전현직 협회 임원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6대 박찬조 회장의 사임



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추영호씨와 민홍기씨 등 2명이 회장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투표결과, 추형호 후보 39표, 민홍기 후보 35표, 무효 1표로 4표가 많은 추형호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추형호 신임회장은 1944년생으로 목포해양대학교(12기)를 졸업했고 현대상선 공무감독, 한홍선박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정호선박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협회 창립이후 최연소 임원으로 협회 경영에 30년간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회장으로서 그간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추형호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오랜 협회 임원으로써 봉사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뜻으로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이제 영원한 해기인으로 기록되길 원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전임회장들의 공로를 이어서 올해 협회의 중대한 사업을 착실히 수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형호 신임회장은 앞으로 박찬조 전회장의 잔여 임기인 11개월동안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추영호 회장 약력] △1944년 9월 전남 여수 출생 △목포해양대학교 졸업(12기) △신한해운 부산사무소 부소장 △현대상선 공무감독 △한홍선박 대표이사 △정호선박 대표이사 회장(현재)



한국해법학회

2007년 봄철 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는 5월4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의 판례경향을 중심으로 2007년도 봄철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 앞서 한국해법학회 사업계획 설명과 감사보고, 그리고 문광명 변호사에 대한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는 3개의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인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원용수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세경 대표인 김창준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2주제에서는 법무법인 세창 대표인 김현 변호사의 사회로 목포해양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의 해상사건에서의 법인격부인론(1545-1645)에 대한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제3주제에서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현 교수의 사회로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정영석 교수가 캐나다 해상보험법(1645-1745)을 소개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사무실 이전 및 중부지부 개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원장 서상범)은 한 단계 도약된 위험물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월12일자로 서울본부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고, 천안지역에 중부지부를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1호(전화 및 팩스번호는 변동없음)

[중부지부 사무실] 충남 천안시 신부동 494-1 삼부르네상스 3층 302호, 전화 : 041- 522- 4935/7, FAX. 041-522-4938

한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5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빌딩 B동 402호에서 IMDG Code(국제해상위험물규칙)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해양대학교

LNG 전문인력 강사양성

한국해양대학교 산하에 설립된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가 세계 최초로 LNG 전문인력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ALETC)는 지난 2005년도 국제해사대학연합(IAMU)의 설립인가를 받은 뒤 약 2년에 동안 준비 마치고, 지난 4월 2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LNG선은 고도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현재는 약 220여척이 운항 중이며, 오는 2010년에는 350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LNG 해운 및 관련 산업계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해양대 관계자는 "ALETC에서는 LNG선 전문인력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해양대학의 LNG 교육담당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LNG 선박 발주량의 76%를 건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LNG 수입회사

인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10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이어오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이 있어 L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

박진수 교수(ALETC 소장)는 “이번 교육은 이 같은 해운, 조선, 가스공사로부터 전면적인 관심과 협력에 의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IAMU 회원대학 중에서, 미국 유일의 연방해사대학인 USMMA 교수와 중국 상해해양대학 교수 각 1인이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은 1주간의 기초교육과 1주간의 현장실습(조선소 및 가스 터미널) 및 4주간의 LNG선 승선실습 등 총 6주로 구성돼 있다.

제2회 교육은 오는 7월에 있을 예정이며, 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해양대학 교수요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4월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미래국가 해양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양창호 KMI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해운·항만정책(전준수 서강대 경영대학장) △수산·어촌정책(박성래 부경대 교수) △해양·환경정책(최중기 인하대 교수) 등 3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토론이 있었다.

이어 이정환 KIM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종합토론회에선 최장현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전략기획단장과 전준수 서강대 경영대학장 등 3명의 주제 발표자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이날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로비에선 '아름다운 섬, 독도'를 주제로 한국비경관영단 김종권 단장의 독도사진 30점을 전시하고, 무료로 독도사진첩을 배포했다.

아울러 KMI는 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물을 담은 'KMI 연구 100'도 무료로 나눠줬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3기 외항상선 간부선원 졸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박찬조)은 4월6일 제13기 외항상선 간부선원 양성과정 졸업생 42명을 배출하였다. 이번에 배출된 간부선원 3, 4급 해기사는 지난 2006년 4월11일 입교하여 6개월간의 이론교육을 통해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이어 6개월간의 승선실습을 통해 실무적 능력을 고루 갖추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외항상선, 내항상선, 원양어선 등 3분야로 현장 맞춤형 해기사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정 수료 후 해기사 면허시험과 6개월간의 추가 승선실습을 통해 해기사면허를 취득한다.

국비지원 간부선원 양성 과정은 일선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기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비 해양 수산계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양 수산분야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제13기 외항상선 간부선원 양성과정 졸업생은 한진해운, STX 등 선사에 100% 채용되어 승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수한 해기사로써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